



이름:

WEEK 18

Apr 28

여호수아 15장

본장은 유다지파가 분배 받은 성읍들- 남방(21-32절), 평지(33-47절), 산지(48-60절), 광야(61-62절)-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유다자손이 쫓아내지 못한 예루살렘 주민은 누구였나요?(63절)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던 이 여부스 성읍은 나중에 다윗에 의해 정복됩니다.(사무엘하 5:4-5)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힘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지만, 이 땅에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 정복하지 못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정복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16장

본장은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가 받은 땅을 기록합니다.

15장의 유다자손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쫓아내지 못한 족속은 누구였나요?

Apr 29

여호수아 17장

본장은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서쪽에서 받은 땅을 기록합니다. 15장의 유다자손, 16장의 에브라임 자손과 마찬가지로, 므낫세 자손이 쫓아내지 못한 족속은 누구였나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가나안 거민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고 그 결과, 자기들에게 주신 기업을 완전히 얻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17:12~13). 힘이 강성해졌어도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는 대신 그들을 종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힘이 없을 때는 없는 대로, 있을 때는 있는 대로 편의주의와 실용주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가고 불순종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 쉽습니다. 편리함과 효율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입니다.

여호수아 18장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중 아직 일곱지파나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이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2-3절)

여호수아는 기업분배에 소극적이었던 일곱지파들에게, 각 지파에서 세 명씩 총 21명의 지도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나요?(8-10절)

*각 지파들의 땅 분배처럼, 우리 각 개인, 가정,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며, 그 사명을 향해 지체 없이 줄로 재어 주신 구역을 함께 생생하게 그리는 우리 라이프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Apr 30

여호수아 19장

본장은 나머지 지파들(시므온, 스불론, 잇사갈, 아셀, 납달리, 단)에게 땅을 분배함으로써, 가나안 정복 후, 모든 지파들에게 땅 분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51절).

1) 누가 이 일을 담당했나요?

2) 어디에서 이 일을 담당하였나요?

3) 어떠한 방법으로 분배하였나요?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 끝까지 잘 수행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리고 끝까지 잘 완수해야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본장은 부지중에 사람을 죽인 자를 보호하기 위한 도피성을 기록합니다. 요단 서쪽에 3개, 요단 동쪽에 3개를 지정하였습니다. 각 도피성이 있는 지역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갈릴리 게네스: 구별하다 2) 에브라임 산지 (): 어깨에 짐을 진다.

3) 유다산지 헤브론: 연합, 동맹, 교제 4) 르우벤 지파의 평지 광야의 베셀: 요새

5) 갓 지파의 (): 언덕, 고지 6) 므낫세 지파의 바산 골란: 기쁨

May 1

여호수아 21장

레위인들은 영토로서 기업을 얻지 못했지만(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심), 그들도 거할 처소와 짐승을 먹일 땅(들)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 6개 외에, 이스라엘 전역에서 42개의 성읍을 레위인들이 살아가도록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본장 43-45절은 땅 분배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창세기 15:18-2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나안 온 땅을 네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 다 성취되었음을 보여 주십니다.

- 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하신 ()을 모두 주셨습니다.
- 2) 하나님께서 그들의 ()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 3)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서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 응하였습니다.

여호수아 22장

본장은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을 마치고 요단 동쪽 기업으로 받은 땅으로 돌아가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언덕가에 큰 단을 쌓은 문제로 분쟁이 일어납니다. 요단 동쪽의 10지파들은 그들이 우상숭배를 위한 제단이라고 하자(16절), 그들은 후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 세웠다고 합니다(26-29절). 이렇듯 이스라엘 지파간 공동체가 서로 오해를 풀고 화목하게 된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하나요?(33절)

*무엇이 교회를 분열하게 하나요? 오해로 말미암아 분열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귀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기뻐할 것입니다. 교회가 빠질 수 있는 위험들을 본문은 우리에게 주의깊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May 2

여호수아 23장

모세가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마지막 당부한 것처럼(신명기 후반), 본장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의 길 앞에서 믿음의 유산을 전수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언젠가 우리도 유언을 남기고 고별사를 남겨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 당신의 인생을 대변해 준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잘 산 인생이겠습니까? 당신의 마지막 말이 무엇이 될지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여호수아 24장

본장에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지난 삶(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에 관한)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야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회고하고 있습니다. 내용의 핵심은 지금까지 지낸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세겜에서 반복하여 그들의 믿음을 고백합니다.(15,16, 21,24절)
“너희가 섬길자를 오늘 택하라. ()와 ()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May 3

사사기 1장

사사기는 미정복 상태로 남아있는 일부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정복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 1) 하나님은 어느 지파에게 먼저 가서 싸우라고 하시나요?
(이 지파는 2차 인구조사때 76,500명으로 가장 많고 강한 지파입니다)
 - 2) 가장 먼저 싸우러 가는 지파는 누구에게 함께 가자고 요청하나요?
(이 지파는 2차 인구조사때 22,200명으로 가장 적은 지파였습니다)
-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께 하는 동역이 아름답습니다.

사사기 2장

본장은 사사기 전반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패턴에 대해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풍요를 누리자->하나님을 떠나고->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사사를 통하여 구원해 주십니다(11-19절).

*어쩌면 이 사이클은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어느 지점에서 변화가 필요합니까?

단순히 고통스러워서 우는 것이 영적 삶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참다운 회개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창세기 5:24)